

위기직면한 구내식당 직영

2달간 1천2백만원 적자 학교측, 학생직영에 우려표명

인문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외부인사로부터 학생회관 2, 4층 식당, 교수회관 식당을 인수해 직영해왔으나 큰 폭의 적자 발생, 운영상의 미숙 등의 문제로 식당직영에 대한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식당결산에 따르면 지난 2개월간 구내식당을 직영해온 결과 1천2백61만5천20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인문위는 누적된 적자의 원인을 질적인 개선을 우

선시한 지나친부자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적자 폭에 대해 학교측에 등록금중 일부인 후생복지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생회는 결산감사와 자료조사작업에 들어갔으며, 식당 운영형태에 대해 학생에게 여론 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분석되는 대로 의견을 수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적자폭에 대해서는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건축대전’서 9작품 입상

김석대(건축·4) 군외 2인 공동작품 특선

‘한국건축가협회’의 주최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건축대전’에서 본교 학생작품 ‘Complex Street Block’등 9작품이 입상했다.

지난 17일 발표된 바에 의하면 김석대(건축·4), 이기정(건축·4), 신규상(건축·3) 3인 공동작품인 ‘Complex Street Block’이 특선을 수상했다.

또한 입상작에 ‘한울’, ‘July’, ‘4인’의 건축주와 소규모 Block ‘Cart For Tion’, ‘살 그속에’

기말고사 오는 30일부터 실시

12월11일부터 2월28일까지 동계방학

2학기 기말고사를 오는 30일부터 서울은 9일까지 수원은 8일까지 실시한다.

시험시간표는 오는 23일 단대별로 발표될 예정이며, 동계방학은 12월 11일부터 90년대

부터라도 학생직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식당원료납품업체들은 원료대금을 어느쪽에서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무처 신입교원 발령 장영운 교수등 5인

교무처는 신규임용 교직원 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신입교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교수:장영운(의과대·의학) 임호남(치과대·치의학) 김형진(치과대·치의학)
△전임강사:조동현(한의과대·한의학)

〈독자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대학주보는 정도만을 걷고자 합니다”

대학사회가 그 구성원인 교수·직원·학생 3자간의 상호보완, 비판으로 이뤄지는 공조체제임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 또한 대학사회의 합법적인 대중적인 대학신문 발행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성호(정경대·회계)교수의 투고 “이런 학생회장장을……” 원고에 “대학주보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유인물로 제작·배포되었고, 급기야 이것이 주요 일간지에 보도됨으로 인해 생긴 파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대학사회에 있어 사제간 불신의 벽이 얼마나 높은가를 실감케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대학주보가 걷고자 하는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 좀더 참여의 기회가 공유되는 대학주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그간의 경위와 대학주보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본보는 지난 11월3일 이교수로부터 학생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바라는 학생회장은 이래야 한다”라는 내용의 원고를 투고 받았다.

그러나 당시 학내 주요 정점이 총학생회 선거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고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주간교수를

비롯해 대학주보 전기자들은 비록 개인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내용 자체가 특정후보의 지지라는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많아 후보자들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과정에서 대학주보사 전기자들은 선거에 있어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을 투고자에게 직접 알리고 사전양해와 동의를 분명히 얻었고 그것이 거절이 아닌 연기임을 밝혔다. 아울러 선거 이후 중간호에 게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본사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전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연기에 대한 사유와 배경이 충분히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내외적으로 대학주보를 이익집단으로 규정하고 대도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대학주보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 투고의 게재여부는 투고자의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주간교수 및 전기자가 참석하는 편집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교수의 투고라 할지라도 그 게재여부 판단은 공정한 학내여론의 조성을 담당하는 기자로서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밝히고자 한다.

대학주보 기자일동

가관과, 농촌가정 실태조사 발표회 가족학·아동학·주거학 3분야 설명

가정관리학과는 제9회 ‘농촌가정생활 실태조사’의 발표회를 오는 오후2시부터 A-V센터 2층 시청각실에서 갖는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전북 정읍과 경북 안동 일대에서

월수임이 격거나 고졸이하의 집단일수록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다.

또한 아동학의 경우 ‘아동의 친구개념’에 관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친구개념의 발달적 경향 발표가 있으며, ‘주거 편리성 만족도에 따른 주택 개량 계획’을 주제로 한 주거학 발표에서는 실제 농촌생활에 적합한 농촌주택의 계획에 필요한 자료가 제시될 예정이다.

사치풍조에 물들어가는 대학사회의 단면

▼‘소비인’이란 말이있다. ‘소비인’이란 소비를 단지 사물의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 내면적 공허와 고독과 불안의 보상을 받으려는 인간을 말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공허와 고독과 불안이 많은 사회라서 그런지 ‘소비인’이라 지칭될만한 사람들이 많은듯하다. 더구나 전리의 상아탑이여야 할 대학에까지 이런 사람이 다수라는 사실은 우리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따금씩이던 각 대학에서는 졸업생환송회가 한창이기 마련이고 본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떠나가는 졸업생에게는 지나온 학창시절의 기억을 되돌아보며 헤어지는 아쉬움을 위로하고 몸담았던 정든 교정을 남은이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의

미에서, 떠나보내는 사람에게는 졸업의 축하와 더불어 선·후배간의 혹은 동기들간의 정을 돈독히 하자는 뜻에서 마련되어지는 뜻깊은 자리라 졸업생환송회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식에 있다. 본교에서 행해지는 졸업생환송회가 그 장소선택에서 필요 이상의 사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들으면 누구나 다 알수있는 일류호텔나이트에서만 졸업생환송회를 갖는다. 심지어 어떤과에서는 3류호텔에서 개최하려다 학생들의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졸업하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화스러운 환송회를 받아야만 훌륭한 졸업이 되는것은 아닐것이다.

▼졸업생환송회를 예로 들었지만 이외에도 학생들의 사치는 교내

지 자가용을 몰고다닌다거나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하고 다니는등 그 정도가 상당한 데에까지 이르고 있는듯 하다. 학생들도 기성인들이 경제발전을 이유로 들듯이 파파라지조치 해제로 주머니사정이 넉넉해진 것으로 변명삼으려 할지도 모르겠다.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들의 의식상태에 있다. 돈이 좀 있다고해서 사치에 물들어가는 행동은 학생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스스로 내버리는 것이 되고 말뿐이다. 그렇지않아도 본교가 실력보다는 돈이많은 학생이 많은 곳처럼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실정에서 아예 ‘사치’하면 떠오르는 대학으로 인식되거나 많을까 하는 걱정이 기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든다.

대학 자체평가위원회 발족

교수 8명으로 구성, 질적·제도적 개선 위해

본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90학년도 대학평가 대상교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11월 3일 ‘대학 자체평가연구위원회’와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 평가를 위한 실질적 작업에 착수했다.

대학의 질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학자체 평가위원회는 대학의 전반적인 학사관계, 재정, 경영실태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양캠퍼스 교수들로 구성되어 실질적평가활동을 벌이게 되는 ‘대학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송미섭(사범대·교육) ▲위원:김진영(문리대·국문), 이광재(정경대·신방), 안서규(정경대·경영), 원운순(의대·영문), 조원경(공대·전자), 김무성(산업대·농학)

또한 ‘대학자체평가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한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해 ‘한국대학교육협

강동규 총학생회장 지난 17일 석방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캠퍼스 강동규(법학·4)총학생회장이 지난 17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형사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이날 공판에는 가족, 학생등 40여명이 격려경청을 했다.

한편 유호상(사학·4)부총학생회장은 지난 3일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보법 등에 관련되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

전대기련 공동기획광고 전국대학신문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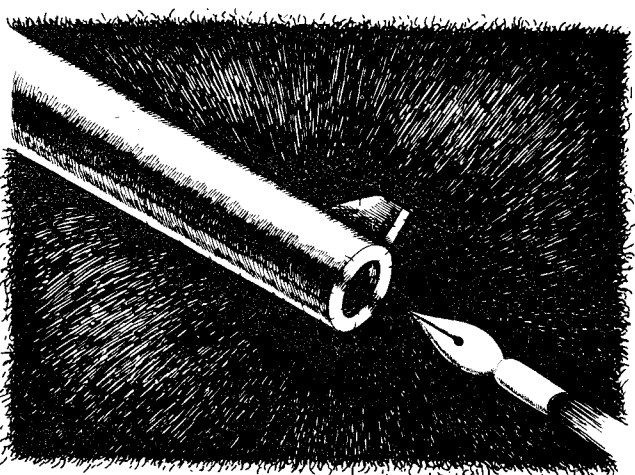
전국의 펜이 뭉쳐싸운다면 잃는 것은 족쇄뿐!

민족을 살리는 대학신문

사수

이 민족 죽이는 국가보안법

철폐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지난 5월 이후로 12명의 대학신문기자와 7명의 필자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총장 책임하에 합법적으로 발행하는 대학신문이 이적표현물이라면 전국의 250만 독자는 모두 이적분자란 말입니까?

대학신문이 교수,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가장 올바르게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가 고려대에서 제시됩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안통치분쇄와 대학신문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대학신문전시회

- 때 : 통일염원 45년 11월 24일(金)~26일(日)
- 장소 : 고려대학교 민주광장

※ 이번 전시회는 12월 초까지 전국 각지역에서 순회전시됩니다.